

‘자기사랑’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 탐색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I. 서론

II. 본론

1. 자기사랑은 아가페(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반제(反題)다: 니그렌의 유신론적 이타주의적 ‘자기사랑’ 비판
2.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가 먼저다: 할렛의 이타주의적 ‘선호’론적 틀 안에서의 ‘자기사랑’론
3.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있다: 바첵의 유신론적 목적론적 ‘자기사랑’론
4. 자기 자신도 ‘동등배려’의 대상이다: 이웃카의 신중심적 ‘자기사랑’론
5. 비교와 평가

III. 결론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elf-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Lee, Chang-Ho

Is self-love a Christian love? Is 'loving self' a proper religious and moral obligation which Christian faith can justif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scourse of 'self-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In doing so, I will examine several leading views of self-love and their justifiability in Christian ethical terms. Three questions inform my inquiry in this paper: 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ove and normative definition of Christian love; 2)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God's and love of self; and 3) the so-called self-other relation. Although many scholars have addressed these questions, I will highlight four major approaches to this inquiry. This paper treats the views of four authors - Anders Nygren, Garth Hallett, Edward Vacek, Gene Outka - whose positions fall on a continuum from least permissive(Nygren) to most permissive(Vacek). I will examine each of these authors in turn and identify their contributions and weaknesses and compare these four authors, highligh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I conclude with some ethical suggestions which can contribute to enriching Korean Christians' life of love in terms of self-love.

Key words: self-love, Christian ethics, Anders Nygren, Garth Hallett, Edward Vacek, Gene Outka

I. 서론

자기사랑도 기독교의 사랑인가? 하나님을 제일(第一)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꼽았던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를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불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사랑에 대해 기독교 사랑의 한 형태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허용하는 입장과는 달리, 자기사랑을 참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랑의 형태로 보면서 기독교 사랑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장도 엄연히 존재한다.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은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종교적 도덕적 명령인가?

담구를 시작하면서 ‘자기사랑’에 관한 기독교의 이해(理解)의 역사에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 형성에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사랑의 윤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의의 큰 틀 안에서 전개하는데, 그의 ‘자기사랑론’ 역시 이러한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유일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랑의 바른 질서 속에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과 자기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된 그리고 완전한 자기사랑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하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심장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에야,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¹⁾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자아는 자연스럽게(본능적으

1) Augustine, *Confessions*, tr. by Henry Chadwic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

로) 자아의 기원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욕구하거나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아가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불완전하게 이해될 때, 자아는 악이 된다.”²⁾ 다시 말해, 자아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 세계를 등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완숙을 찾으려 할 때 자기사랑은 부패하게(perverse) 된다. 말하자면 ‘참된’ 자기사랑과 ‘부패한’ 자기사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자기사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필자는 밝혀 두고자 한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자연법적 질서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자기사랑’론을 긍정의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기초를 놓는다. 그는 하나님의 자연법적 창조론적 섭리 질서에 상응하여,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사랑의 질서’론을 전개한다. 사랑에 질서가 있다 함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대상의 관점에서 선후(先後)와 질서가 있음을 내포한다. 원수보다 친구를³⁾ 또 악한 이들보다 덕스러운 이들을⁴⁾ 더 사랑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이 ‘질서’의 관점에서 자기사랑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⁵⁾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들은 더 큰 선(善)을 보유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덜 가까운 사람들 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⁶⁾는 그의 견해와 함께 생각할 때, 자기사랑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아에 대한 가치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아퀴나스에게 자기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혹은 사랑의 질서)의 반영이자 표출이며 자아에 내재된 선(善)에 대

2) Oliver O'Donovan, *Problem of Self-love in St. August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147.

3)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이하 ST) II-II 27.7.

4) ST II-II 31.3.

5) ST II-II 26.3-4.

6) ST II-II 26.6.

한 반응인 것이다.

가톨릭 전통이 어거스틴의 ‘자기사랑’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개하고 확장했다면, 개신교 전통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켜 왔다고 대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자기사랑이 먼저이고 타자에 대한 사랑은 자기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자기사랑은 죄악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왜곡된 사랑의 형태이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의 계명에 부합된다고 강조한다.⁷⁾ 스웨덴의 루터교 신학자 니그렌(Anders Nygren)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동기초월적 사랑으로 규정하는 반면, 자기애적(自己愛的) 사랑의 역동인 ‘에로스’는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에 좌우되는 사랑이며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능적 욕구로 이해한다. 니그렌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반제(反題)로서의 자기사랑을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개신교의 자기사랑 이해의 전부는 아니다. 역시 루터교 신학자인 아웃카(Gene Outka)는 니그렌의 해석을 자기사랑에 대한 개신교적 이해에 있어 하나의 극단적인 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자기사랑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덕적인 요구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혹은 ‘즉각적으로’(unreflectively)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자기사랑은 정상적이다(normal). 또한 아웃카는 규범적으로 자기사랑이 이웃 사랑을 위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황금률’이 이를 증거한다고 보았다.⁸⁾

7) Martin Luther, *Lectures on Romans*, tr. and ed. by Wilhelm Pauc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366-369.

8) Gene Outka, Agapeistic ethics, in Philip Quinn and Charles Taliaferro, eds.,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Oxford: Blackwell, 1997), 485.

이 논문의 목적은 자기사랑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자기사랑의 윤리적 견해를 정리해 보고 그 견해들을 비교·평가하면서 자기사랑의 기독교윤리적 정당성을 논구할 것이다.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탐구를 이끌러 갈 질문들(혹은 주제들)은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본 '자기사랑'에 관한 이해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주된 논쟁점들이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사랑과 아가페의 정의(定意)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자기사랑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철저한 이타성에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찾는 니그렌에게 자아지향적(自我指向的) 사랑의 역동은 규범적으로 옳지 않은 반면, 사랑의 대상의 선(善)을 향한 자연스러운 지향성을 기독교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아퀴나스에게 하나님 창조의 선함이 내재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또 정당하다. 그러므로 자기사랑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과 병행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주제이다.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사랑의 정당성을 논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자기사랑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웃 사랑의 규범적 이상(理想)을 찾는 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찰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사랑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셋째, 자아와 타자의 관계 문제이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기사랑의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타적 희생이 사랑의 이상으로 드높여지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자를 사랑함'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또 자아와 타자를 향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배려를 강조하여 자아와 타자 사이의 균등한 거리

를 유지하는 것을 규범적 이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한 균등의 유지가 기계적 균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하며 둘 사이의 불균형성을 조심스럽게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주제들 혹은 질문들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독교적 ‘자기사랑’론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네 명의 학자를 주로 다룰 것인데, 자기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대비적인 견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니그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로 바첵(Edward Vacek), 그리고 그 중간에 할렛(Garth Hallett)과 아웃카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이 네 학자가 각각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살피고 이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자 하는데,⁹⁾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좀더 온전한 자기사랑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자기사랑은 아가페(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반제(反題)다: 니그렌의 유신론적 이타주의적 ‘자기사랑’ 비판

니그렌의 자기사랑 이해는 그의 아가페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니그렌

9)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성서언어적 성서주석학적 작업보다는 네 학자의 견해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비교·평가에 방법론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니그렌의 자기사랑으로서의 ‘에로스’ 이해는 철학적 신학적 해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할렛은 신약성경의 사랑론을 추적하면서 자아선호 등의 개념으로 자기사랑을 말하지만 그 접근은 주석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 분석적이다. 바첵은 자기사랑은 기독교의 정당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역설하면서 성서의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자기사랑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근거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웃카는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라는 신학적 관점(perspective)으로부터 자기사랑을 논한다.

은 인간이라는 도덕행위자의 차원에서 규범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인간 아가페의 규범적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먼저 논한다. 니그렌은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동기초월의 사랑이다(spontaneous and unmotivated).¹⁰⁾ 하나님의 사랑은 외생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거나 그 행동의 원리가 행위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이다. 또한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해 사랑의 의도를 갖거나 사랑의 행위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로서 곧 이타적 사랑으로만 가득한 존재로서 그 존재의 본질에 부합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동기초월적이다. 둘째,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이다(indifference to value).¹¹⁾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사랑 실행의 여부, 사랑의 강도, 사랑의 지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관념 자체를 뛰어넘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사랑이다. 셋째,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다(value-creating).¹²⁾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가치 평가에 근거하여 창조자와 구원자로서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창조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다.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¹³⁾ 넷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initiator of love).¹⁴⁾ 요한1서의 증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

10)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78-79.

11) 위의 책, 80.

12) 위의 책, 81-82.

13) 같은 책.

14) 위의 책, 83.

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1 4:10-11).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언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도적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사랑의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그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다. 이 사랑이 규범적으로 옳다. 니그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직접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 외에 다른 모든 형태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본다. 니그렌에게 ‘에로스’¹⁵⁾는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반제다. 니그렌은 플라톤의 ‘에로스’론에 근거하여 에로스를 획득적 사랑으로 이해한다. ‘에로스’는 타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욕구충족적이며 이기적 동기에 좌우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¹⁶⁾ 필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만을 향하는 사랑의 역동인 것이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른 동기부여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사랑으로서의 에로스는 동기초월적이며 가치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과는 다르다.¹⁷⁾ 철저히 동기에 좌우되며 가치 판단에 따라 사랑한다.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기꺼이 철회한다. 또한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이다. “플라톤적 에로스는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개인적 자아와 그의 운명에 집중한다... 에로스가 획득적 사랑이라는 사실이 에로스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충분히 알려준다. 모든 욕망, 혹은 욕구, 그리고 동경은 자기중심적이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다.”¹⁸⁾ 심지어 신적 존재를

15) 니그렌에게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의 지향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해 자아를 독점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자나 하나님도 자기중심적 사랑의 도구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16) Outka, *Agapeistic ethics*, 482.

17) 니그렌, 위의 책, 177.

18) 위의 책, 181.

향한 영적 추구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¹⁹⁾

그리하여 니그렌은 참된 이웃 사랑을 비롯하여 정당하게 기독교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 사랑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위의 기준과 동력의 측면에서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의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관'(tube)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⁰⁾ 하나님의 사랑은 규범적 모범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구체적 사랑 실천을 위한 감정적 실천적 동인과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은 참되게 곧 '부정적 자기사랑의 범주를 벗어나' 사랑할 수 없다. 여기서 니그렌은 자기사랑의 부정성을 극단의 지점으로 밀어붙이면서, 사랑의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잠재성을 폐기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니그렌은 유일한 참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아가페)과 대조적으로, 자기사랑(에로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사랑을 부정하게 보았다. 자기사랑의 역동은 최악된 욕망에 기인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간적 애정의 동기과 행위는 결국 죄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니그렌은 인간의 죄악됨과 무력함 그리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뼈대로 하는 루터교 신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기독교 사랑의 한 이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깊은 죄악과 '노예의지'에 좌우되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하다. 강력한 자기에적 욕망에 본능적으로 좌우되는 인간은 타자를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 이웃 사랑이 발

19) 위의 책, 182.

20) 위의 책, 791.

생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통로’인 인간이라는 행위자를 통해 타자에게 흘러간 것일 뿐이다. 또한 니그렌은 자기사랑은 죄악이며 우정 등과 같은 상호적 사랑의 관계와 행위들도 결국 아가페를 변질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기독교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타주의적 이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사랑의 가능성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이타주의적 특징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에서(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정녕 자기사랑을 정당한 도덕적 명령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 이타성을 존중하면서도, 자기사랑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이론의 가능성을 기독교 철학자요 윤리학자인 할렛에게서 찾아보자.

2.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가 먼저다: 할렛의 이타주의적 ‘선호’론적 틀 안에서의 ‘자기사랑’론

할렛은 기독교 사랑 곧 아가페의 본질을 이타주의적 헌신에서 찾는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관련된 본문들을 고찰하면서, 기독교 사랑을 ‘선호’(preference)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아가페는 자아와 타자를 향한 사랑의 실행 여부 그리고 사랑의 강도의 차이를 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인지 타자를 사랑할 것인지 또는 자아를 더 사랑할 것인지 타자를 더 사랑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할렛은 생각한다. 그는 신약성경의 여섯 가지 ‘선호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그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 주석적이거나 기보다는 신약성경의 사랑에 관한 윤리적 명제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어야 하겠다.²¹⁾

한쪽 끝에는 자기 자신의 복지를 타자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자아 선호(Self-Preference) 유형을 위치시키고 반대쪽 끝에는 타자를 위해 모든 경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아부인(Self-Denial) 유형을 상정한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아와 타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균형(Parity) 유형, 타자에게 더 큰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는 기초를 채택하는 타자선호(Other-Preference) 유형, 타자에게 유익에 되는 한에서 자아 배려를 허용하는 자아복종(Self-Subordination) 유형, 자기 자신의 유익은 타자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되는 자아망각(Self-Forgetfulness) 유형 등이다.²²⁾

여섯 가지 유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자아선호(Self-Preference) 유형이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해(利害)가 충돌할 때, 타자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여지를 남겨두는 유형이다. 신학적 윤리의 전통에서 자아에 대한 상대적 선호의 근거를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은 아퀴나스이다. 앞에서 본대로, 아퀴나스는 ‘사랑의 질서’론에 입각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 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³⁾ 할렛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소개한다. 한편으로, 아퀴나스 같은 이는 이 사랑의 계명을 근거로 하여 자기사랑이 먼저이고 자기사랑을 타자에 대한 사랑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다른 한편으로, 루터는 아퀴나스식(式)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기사

21) Stephen Pope,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3, 1995, 169.

22) Garth L. Hallett, *Christian Neighbor-Love: An Assessment of Six Rival Version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9), 2-10, 47-82.

23) *ST* II-II 26.3-4.

24) Thomas Aquinas, *Opusculum* 54, chap. 3, Hallett, *Christian Neighbor Love*, 3 에서 재인용.

량은 왜곡된 형태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심 곧 ‘내 몸을 극진히 사랑하
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 대신 타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⁵⁾
모범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형태가 반드시 그 모범을 따르는 형태보다 우
월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웃 사랑의 도덕적 명령도 자기사랑을 모범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필클(Richard Volkl)을 인용하면서 할렛은 디모테전서 4장 16절²⁷⁾과 사
도행전 20장 28절²⁸⁾과 같이 신약성경에서 자아선호 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문들을 소개하지만, 필클과는 달리 이러한 본문들이 필연적으로
자아선호 유형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할렛은 이 두 경우 모두 자아와 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관
점에서 전혀 충돌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본문이지, 자아선호
를 도덕적으로 권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점에
서 그는 신약성경에서 자아선호를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본문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겠다.²⁹⁾

둘째, 균형(Parity) 유형이다. 자아와 타자를 사랑함에 있어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렛은 예를 들어 설
명한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똑같이 이롭고 내 이웃에게는 두 번째를 선택할
때 더 유리하다면 나는 첫 번째 뿐 아니라, 두 번째도 선택할 수 있다.³⁰⁾

25) Luther, 위의 책, 366-369.

26) Hallett, 위의 책, 49.

27)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개역개정판).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개역개정판).

29) Hallett, 위의 책, 50.

30) 위의 책, 3-4.

기독교 사랑의 이타성에 대한 규범적 강조가 타자와 연관하여 자기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다. 균형 유형의 관점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풀이한다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형식 혹은 방법에 있어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³¹⁾

‘예루살렘 교회 후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8-9장을 생각해 보라(특히, 고후 8:12-15³²⁾을 보라). 쉘클(Karl Schelkle)은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행위의 지침은 균형 유형의 원칙에 가깝다고 보면서 “헌금 모금의 목표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에 있어서의 평등”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³⁾ 그러나 할렛의 해석은 좀 다르다.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했으나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수준 이상을 의무 사항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할렛은 지적한다(고후 8:8). 또한 헌금을 모금하는 입장과 기부에 참여하는 입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헌금하는 교회나 받는 교회 모두에게 바울은 공평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 계속 후원하는 입장에 서 있고 다른 어떤 교회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할렛은 주장한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모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으는 것이 균형 유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을 근거로 균형 유형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할렛은 결론짓는다.³⁴⁾

31) ST II-II 44.7.

32)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8장 13-14절을 인용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개역개정판).

33) Karl Schelkle,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tr. by K. Smyth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9), 126, Hallett, *Christian Neighbor Love*, 51 에서 재인용.

34) Hallett, 위의 책, 51-52.

셋째, 타자선호(Other-Preference)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아의 유익에 대한 배려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타자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입장을 나타낸다. “기독교 사랑은 봉사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기에, 이웃과 이웃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기독교 사랑의 이상은 균형 유형이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기를 명령한다.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행 20:35).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라는 규범적 명령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눅 6:33-35; 14:12-14; 롬 12:10; 요 1 3:16 등). 그러나 이 유형은 타자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기 유익뿐 아니라 타자의 유익도 구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러한 권면에서 신약성경은 자아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살펴겠지만, 이런 점에서 타자선호의 유형은 더 철저한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자아복종, 자아망각, 자아부인의 유형 등이 요구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넷째, 자아복종(Self-Subordination) 유형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으나 타자에게 최대한의 유익이 돌아감을 확실히 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포하는 유형이다. 할렛은 이 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자들을 인용한다. 암브로스(St. Ambrose)는 “바르게 사는 사람은 타자의 소유를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타자의 불이익을 토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³⁶⁾ 바르트(Karl Barth)

35) 위의 책, 4.

36) St. Ambrose, *Duties of the Clergy*,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tr. by H. De Romestin, 2nd ser., Vol. 10, book 3, chap. 2, n. 13, Hallett, *Christian Neighbor Love*, 5 에서 재인용.

인용도 주목할 만하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신학적 주제는,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자기 부정이나 금욕주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바울은 자신을 내어 줄 때, ‘너의 영혼을 위해서’라고 했다(고후 12:15).”³⁷⁾ 자아복종의 유형에서 바르트 인용이 중요한 까닭은 이 유형이 앞의 유형들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타자지향적 자기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할렛은 마태복음 5장 38-42절에 나오는 예수의 명령을 예로 든다. 타자의 요구가 있거나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줄 수 있으며, 원한다면 겹옷 뿐 아니라 속옷 까지도 벗어줄 수 있다. 그러나 할렛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벗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고 풀이한다. 이런 점에서 할렛은 타자선호나 자아복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자아부인이나 자아망각만을 기독교 사랑의 규범으로 삼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³⁸⁾

남은 두 가지 유형은 함께 생각하겠다. 자아망각(Self-Forgetfulness)과 자아부인(Self-Denial)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의 기초는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이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핵심이라는 명제이다. 자아망각 유형의 경우, 자기 자신의 유익은 오직 타자의 유익과 관련해서만 구할 수 있으며 자기 유익을 타자의 유익으로부터 완전히 떼어서 독립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³⁹⁾ 타자의 유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없다는 자아망각 유형의 원칙을 포괄하면서, 자아부인의 유형은 좀더

37) Karl Barth, *Ethics*, ed. by D. Braun and tr. by G. Bromiley (New York: Seabury, 1981), 329, Hallett, *Christian Neighbor Love*, 5에서 재인용.

38) Hallett, 위의 책, 53-55.

39) 위의 책, 5-6.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유익까지도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⁴⁰⁾

할렛은 누가복음 6장 35절⁴¹⁾과 14장 12-14절⁴²⁾에 나오는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타자를 위해 헌신하되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가르치신다. 돌려 줄 능력이 없기에 가난한 이들을 섬겨야 한다면, 이것은 자아부인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이라고 할렛은 해석한다. 다시 말해, 사랑의 윤리적 실천은 자기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의 복지나 행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러나 할렛은 돌려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먼저 섬기라는 명령을 타자에 대한 섬김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영향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예수의 윤리적 명령을 굳이 자아망각과 자아부인 유형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자아복종 유형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⁴³⁾

앞에서도 살핀 대로, 바울은 자아망각이나 자아부인 유형이 요구하는 전적인 자기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자의 유익은 물론이지만, 자아의 유익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빌 2:4). 다시 말해, 타자의 유익을 우선시

40) 위의 책, 6.

41)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개역개정판).

42)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푸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개역개정판).

43) Hallett, 위의 책, 56-57.

하고 자기 유익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둘이 충돌할 때 타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의 유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고전 10:24; 롬 15:1). 이런 맥락에서 할렛은 바울서신(특히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이타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분쟁에 관한 염려,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 곧 자기중심적 추구가 주된 배경이라는 것이다.⁴⁴⁾ 또한 할렛은 타자의 유익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지는 확실치 않다.”⁴⁵⁾

할렛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약성경은 자아망각이나 자아부정 보다는 자아복종의 규범을 사랑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타자 선호 유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타적이어야 하며 또 자아망각과 자아부인의 유형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아에게 좀더(매우 약한 정도이지만) 유익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이해인 것이다. 요컨대, 할렛은 니그렌 만큼 자기사랑에 부정적이지 않다. 타자지향적 자기희생의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그렌처럼 자기사랑을 죄악시하거나 부정(不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할렛은 선호론적 관점에서 기독교 사랑의 자기희생적인 타자지향성을 규범적인 핵심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사랑의 윤리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니그렌과 할렛과는 달리, 기독교 사랑의 이타성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타자지향적 아가페와 더불어 자기사랑도 정당한 도덕적 명령으로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을

44) 위의 책, 58.

45) 위의 책, 59.

대표하는 신학자인 바츨을 만날 차례이다.

3.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있다: 바츨의 유신론적 목적론적 ‘자기사랑’론

바츨의 사랑론은 근본적으로 가톨릭 전통에 서 있다. 바츨은 이 전통이 오랜 역사를 걸쳐 견지해 온 대로, 이타적 아가페, 우정, 자기사랑(에로스) 등 모든 사랑의 형태가 기독교의 사랑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⁴⁶⁾ 이타적 아가페 외에 다른 사랑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과 달리, 바츨은 ‘아가페를 비롯하여 자기사랑으로서의 ‘에로스’ 그리고 상호적 공동체적 사랑의 관계로서의 ‘필리아도’도 정당한 사랑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가페는 타자 자신을 위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에로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필리아는 타자와의 우정의 관계 형성을 위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츨의 사랑 이해는 감정적 역동이 배제된 추상적 의무로서의 사랑의 규범에 대해 순종하는 의무론적 이해도 아니며 인간 행위자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기능하는 어떤 유신론적 기능론적 이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 이해는 목적론적이며 본능적이다. 사랑은 목적으로서의 선(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사랑의 대상 안에 내재된 선을 인식하고 그 선에 자연스럽게(naturally) 이끌려 그 대상을 정서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affectively affirming)이다.⁴⁷⁾ 이 사랑은 일방향이치지(unilateral) 않으며, 사랑하는 대상과의 친밀한 상호적 관계의 형성으로 완성된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자신 안에

46) Edward Collins Vacek, S.J., *Love, Human and Divine: The Heart of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4), 304-312.

47) 위의 책, 5-16, 49-66.

내재된 선(善)에 대한 정서적 확증이 에로스 사랑이며, 타자에 내재된 선에 대한 목적론적 이끌림과 타자와의 일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 전통의 목적론적 사랑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바첵의 사랑 이해의 독특성은 모든 사랑의 형태에 대한 그의 유신론적 해석에 있다. 바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표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구현에 협력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이든 종교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구현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바첵은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요 표출이며, 인간 행위자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완수를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인간이 하나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이해는 펠라기우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바첵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에의 책임적인 참여는 ‘선행적 은혜’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비판을 비껴간다.⁴⁹⁾ 가톨릭 전통의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자연적 사랑 속에 이미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가 모든 형태의 인간적 사랑의 실천들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며 자연적 사랑을 승화시켜 더욱 고상한 형태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바첵은 자기사랑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표출하며 또 그 사랑에 협력하는 종교적 사랑으로 본다.⁵⁰⁾ 바첵은 자기사랑에 대한 좀더 심화된 정당화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삼위일

48) 위의 책, 1-5.

49) Pope, 위의 글, 182.

50) Vacek, 위의 책, 21-27, 201-205.

체적 관점에서 자기사랑의 신학적 정당성을 추적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일종의 자기사랑의 형태로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표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또 반영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타자를 향해 그 사랑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상호적 공동체적 사귄에 이른다.⁵¹⁾

또한, 바첵은 자기사랑의 정당성을 성서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도 빼놓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43-48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밝히신다. 바첵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자문하면서, 만일 이타적 아가페가 자기사랑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한다.⁵²⁾ 마태복음 16장 25절과 19장 29절에서 예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잃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얻는 것이 목적이려면, 무엇을 얻는 것인가? 그것은 생명인데, 타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이다. 예수의 치유 사역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예수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치유를 통한 자기 유익의 신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이 주어진다. 기도는 어떤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배려를 전제한 간구라고 보는 것이다(눅 11:9-13). 이상의 성서적 근거들을 참조하면서 바첵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기사랑 없이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⁵³⁾

51) Edward Collins Vacek, S.J., *Love, Christian and diverse: a response to Colin Grant*,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4, 1996, 31.

52) 같은 글.

53) 위의 글, 32.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바첵은 기독교 사랑의 이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도 자기사랑을 기독교 사랑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만 기독교적인가 자문하면서 스스로 '부정'으로 답한다. 그가 제시하는 몇 가지 논거를 살펴보자. 먼저,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 발견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타적 사랑의 구체적 보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그러기에 바첵은 이타적인 사랑은 인간에게만(물론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바첵은 이타적 사랑의 본능적 성향을 지적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본능적인 혹은 자연적인(natural)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전통이 강조하는 자연법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해(害)가 되는 것을 피하는 본능적 질서를 내포한다. 그러나 자기사랑에만 본능적 지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첵은 타자를 돌보는 것도 본능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⁵⁵⁾ 마지막으로, 니그렌의 사랑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사랑의 이타성을 검토한다. 바첵이 보기에, 니그렌의 사랑의 행위자는 자기충족적이다. 그래서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또 사랑 때문에 상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기에 상호성이 존재할 수 없다.⁵⁶⁾ 오직 한 가지 방향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어, 그 사랑의 통로로서 타자를 향해서만 그 사랑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일방향적이다. 그러므로 니그렌에게 사랑은 이타적이며 동시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이(轉移)인 것이다.

54) Stephen Pope, *The Evolution of Altruism and the Ordering of Lov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4), 110-119.

55) Vacek, 위의 글, 33.

56) 같은 글.

바첵은 기독교 사랑은 오직 이타적이어야 하고 또 그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의 반영이라는 니그렌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타적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들 곧 우정이나 자기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반영이며 표출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당한 기독교 사랑의 한 형태로서 자기사랑에 확고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바첵이 이타적 아가페를 자기 사랑 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니다.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자기사랑 담론에서 바첵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 되기도 한다. 자기사랑의 긍정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기여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기독교 사랑의 이타적 본질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자아를 향한 사랑의 역동을 본능적 은혜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성(利己性) 곧 타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세 학자의 이론들에서 우리는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긴장과 충돌의 지점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 기독교의 ‘자기사랑’론은 니그렌, 할렛, 바첵의 견해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윤리적으로 정당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가? 기존의 담론을 폭넓게 살피면서 ‘자기사랑’에 관한 주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검토한 학문적 작업을 소개할 차례이다. 자아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대상이어야 함을 전제하면서, 이타주의적 전통과 가톨릭의 목적론적 전통 외에 불편부당론적 견해를 추가하여 자기사랑에 관한 윤리적 담론을 확장한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아웃카를 만나보자.

4. 자기 자신도 ‘동등배려’의 대상이다: 아웃카의 신중심적 ‘자기사랑’론

아웃카에게 기독교 사랑은 ‘동등배려’(equal regard)이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사랑의 대상인 ‘이웃’인 것이다.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한 배려는 개인마다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나 인간됨의 특수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인식에 근거한다.⁵⁷⁾ 이러한 가치 인식의 토대는 신학적이다. 창조와 구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가치부여가 그것이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부여 때문에 도무지 더 축소할 수 없을 만큼 꼭 찬 가치의 존재로 또 어느 것에도 환치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웃카는 기독교의 아가페를 ‘자격심사를 뛰어넘는 배려’(unqualified regard)라고도 규정하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 혹은 평가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 자격의 유무와 대소에 상관없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함을 뜻한다.⁵⁸⁾ 배려라는 개념은 심리적 감정적 의미로 제한되지 않는다. 타자를 향한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내포한 개념이다. 사랑의 대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의 행복과 최선(the best)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또 그의 행복과 최선을 실현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는 구체적 ‘실천’과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⁵⁹⁾ 대가와 반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57) Gene Outka,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2), 13-15.

58) Gene Outka, Comment on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6, 1998, 437-438.

59) Outka, 위의 책, 9-13.

오직 적대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기에 동등배려로서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universal scope)과 반응을 초월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방향성’(unilateral feature)을 주된 규범적 특징으로 삼는다.

아웃카의 ‘동등배려’로서의 아가페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이라면,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아웃카는 신중심적(theocentric) 관점에서 자기사랑의 문제를 접근한다.⁶⁰⁾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로서, 창조한 세계와 온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것에 상응해야 한다고 아웃카는 생각한다.⁶¹⁾ 모든 인간 존재가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 혹은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 그 자체로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기에 타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타자와 자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 상응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자는 역시 타자와 자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타자와 자아에게 어떤 불균형이나 차별성을 허용함이 없이 불편부당하게 혹은 똑같이(기계적인 균등을 견지하며) 사랑해야 하는가? 아웃카는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의 관점에서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주장하는 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러

60) 이 부분은 아웃카의 윤리 사상을 다루었던 이전의 논문의 항목 중 ‘자기사랑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며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다시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창호, 「진 아웃카(Gene Outka)의 윤리 사랑: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사회연구부 편, 『윤리신학의 탐구』(신산信山 김철영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410-416.

61) Gene Outka,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Edmund N. Santurri and William Werpehowski, eds.,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2), 1-3, 6-17.

한 질문들에 대해 규범적으로 또 경험적으로(서술적으로) 응답한다.

보편적 사랑은 불편부당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타자를 사랑하되, 기계적 균등을 유지하며 사랑한다. 자아와 타자 중 어느 한 쪽을 더도 덜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는 자아와 타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한 가치 인식을 전제한다. 동등한 가치 인식은 동등한 배려로 이어진다. 타자와 자아의 필요나 행복에 대해 그 어떤 차이도 허용함이 없이 동등하게 관심을 갖고 또 그 관심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에서 동등한 배려이다. 모든 인간이 보유하는 동등 가치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은 불편부당성이라는 규범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자아와 타자 사이에 그 어떤 불균형이나 불평등도 거부된다. 아웃카는 불편부당성의 옹호자들처럼 인간에 대한 가치 인식에 있어서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지만, 동등한 배려를 동일한 대우(identical treatment)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⁶²⁾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불편부당론적 해석과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론 사이의 중요한 차이의 가능성을 감지하게 된다. 불편부당론적 해석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존재론적 규범적 실천적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지만,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론은 불균형을 허용하는 규범적 여지를 남겨 둔다. 아웃카는 불편부당론적 해석이 기독교 아가페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아웃카는 네 가지 불균형(asymmetry)⁶³⁾을 제안하며 불편부당론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둘은 규범적 명제이며 다른 둘은 경험적 명제이다. 각각의 명제를 상술하면서 아웃카의 자기사랑 이해를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규범적 명제인데, 기독교 사랑의 계명에 응답하는 개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타자의 그것에 우선적으로 집

62) Outka, 위의 책, 10, 19-21.

63) Outka,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17-91.

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부당론적 해석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러한 타자에의 집중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과 동의의 문제로 본다. 아웃카는 기독교 이타주의의 불편부당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 간다. 아웃카가 소개하는 이타주의의 불편부당론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불편부당론자들이 자아와 타자 사이의 동등한 가치 인식과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동등한 배려의 실천적 요구를 강조하다가 이러한 강조가 오히려 자기사랑에 대한 정당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불편부당론적 입장이 사랑(기독교 사랑)을 철두철미한 효용 계산을 포함하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기계적 균형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타주의의 비판에 대한 아웃카의 응답은 무엇인가? 먼저 이타주의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타주의가 기독교 사랑의 타자지향성과 일방향성이라는 규범적 특징을 견지하고 또 강화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웃카는 자신의 신중심적 관점과 불편부당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이타주의의 약점을 지적하는데, 일방향적이며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규범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기 자신을 정당한 사랑의 대상 범위에서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그 대표적인 보기로 든다.⁶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엄격한 균등 유지에 대한 불편부당론자들의 강조가 기계적 균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이타주의의 비판에 대한 아웃카의 응답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타주의의 비판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웃카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면서, 아웃카는 이타주의보다는 자신의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 이해가 그러한 위험 극복의 방안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은 불편부당론적 해석이 허용할 수 없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불가피한

64) 위의 글, 17-44, 80-81.

불균형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사랑은 사랑의 행위자가 자기 자신 보다 타자를 우선적으로 또 더 큰 정도로 사랑할 수 있으며 또 타자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서는 공덕적(功德的) 실천으로 타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도덕적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불편부당론적 해석을 넘어서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웃카는 이타주의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타주의자들은 타자의 자아에 대한 우선성을 규범적 필수조항으로 여기는 반면, 아웃카와 같은 ‘보편적 사랑’론자들은 그러한 우선성에 대한 규범적인 여지를 남겨둔다고 해도,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⁶⁵⁾

두 번째는 경험적(서술적) 명제로서, 사랑의 행위자로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웃카는 불편부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불편부당론자들이 제시하는 규범과 달리, 현실 세계 혹은 경험의 현장에서 인간의 강렬한 자기애적 경향을 적절하게 파악하거나 또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랑의 윤리가 이타주의 보다 불편부당론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경험적 명제에 담긴 진실을 간과한다면 타자 지향적 자기희생의 사랑이 인격적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개선(改善)의 변화 능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웃카는 우려한다.⁶⁶⁾ 아가페가 사회적 차원에서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일 수 있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어 자기희생적 아가페의 추동(推動)은 긍정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⁶⁷⁾ 그러나 아웃카는 이러한 이타주의의 타자지향적 자기희생적 사랑의 역동을

65) 위의 글, 81-82.

66) 위의 글, 46-47.

67) Outka, 위의 책, 28-31.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과도한 자기희생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배제한 타자지향적 사랑이 갖는 위험을 경계한다. 두 가지 우려가 여기에 있다. 하나는 자기희생적 사랑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강조가 자아와 타자 사이의 동등한 가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자아를 타자 보다 열등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른 하나는 자기희생의 사랑이 사랑의 대상인 타자에게 또 사랑하는 행위자 자신 모두에게 해악(害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희생적 사랑에 적절한 제한(制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웃카는 동의한다.

세 번째는 다시 규범적 명제로서,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독보적 가치를 보유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부당성의 옹호자들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다가 적절한 자기 배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포하는 명제이다. 이 명제를 통해 아웃카는 불편부당론자들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기계적 균형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강조가 인간이 개별 존재로서 갖는 고유한 가치와 특수한 삶의 계획과 소명의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⁸⁾ 인간 존재로서 ‘내’가 개별적 존재로서 갖는 독보적 가치와 내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삶의 여정과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 부여와 인도하심을 존중하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여정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문제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나 자기비하도 문제이다. 교만도 죄

68) Outka,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48-51.

이지만 게으름 혹은 나태(sloth)도 죄가 된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꺼이 복종하는 삶에서 오직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으므로 “나 자신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존재의 양식은 무시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역시 믿음의 부재(不在)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웃카는 강조한다.⁶⁹⁾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否定)은 ‘나라는 존재에 독보적 가치와 고유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네 번째는 다시 경험적(서술적) 명제로서, 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편부당론적 해석이 자아·자아 관계와 자아·타자 관계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불균형을 파악하고 반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한 명제이다.⁷⁰⁾ 아웃카의 ‘보편적 사랑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양면적으로 응답한다. 먼저 아웃카는 자아·자아 관계와 자아·타자 관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 불균형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불균형의 가능성(혹은 자아·자아 관계에 좀더 비중을 두게 되는 가능성)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경계한다. 인간 존재로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또 타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보기로 제시한다. 또한 아웃카는 타자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나 종교적으로 타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웃카는 ‘회개’를 실례로 들어 설명한다. “나는 내 이웃에게 회개하라고 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 이웃을 대신하여 회개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교만에 이르게 되며

69) 위의 글, 56.

70) 위의 글, 60-62.

내 이웃을 모욕하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⁷¹⁾ 여기서 아웃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종교적 과업들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적으로 고유하고 특수한 존재로서 걸어가야 할 신앙적 순례의 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아웃카에게 자기사랑은 정당한 도덕적 종교적 명령이다. 자기 자신도 동등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드시 순응해야 할 도덕적 요구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혹은 즉각적으로(unreflectively) 자기 자신을 배려하게 되는 것이 인간존재의 질서인 것이다. 자기사랑의 이러한 내재적 본능적 특징을 감안하면서도, 아웃카는 자기사랑이 이웃 사랑을 위한 규범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특별히 자기사랑이라는 주제를 신중심적 보편적 사랑의 틀 안에 끌어 들여 고찰함으로써 자기사랑의 담론을 심화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5. 비교와 평가

1) 자기사랑과 사랑의 정의(定意)

니그렌은 자신의 사랑론을 ‘위로부터’ 전개한다. 다시 말해, 연역적 방법으로 기독교의 아가페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모범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하는 기독교 사랑의 이상(理想)은 이타성, 보편성, 일방향성 등의 규범적 특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상에서 볼 때 자기사랑은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 할렛은 기독교 사랑을 ‘선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여러 대상 중에서 특정 대상에게 선호

71) 위의 글, 65-66.

를 갖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관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신약성경에서 여섯 가지 선호의 유형을 찾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자아와 타자 사이의 선호의 양상을 여섯 가지 형태로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할렛은 기독교인이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규범적으로 자아보다 타자를 선호해야 한다는 기초를 견지한다. 자아복종의 유형을 신약성경이 드러내는 사랑의 규범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할렛은 니그렌과 마찬가지로 '이타성'을 아가페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만 자아복종의 경우에서도 자기 배려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허용하지 않는 자아망각과 자아부인의 유형을 기독교 사랑의 이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니그렌보다는 자기사랑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바첵의 사랑 이해는 목적론적이며 자연법적임을 보았다. 목적론적이라 함은 대상의 선(善)을 파악하고 그 선을 향해 이끌려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타자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선을 발견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가톨릭의 신학 전통 안에서, 바첵은 자기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지없이 포착하기에 자아는 사랑의 목적으로서의 선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법적이라 함은 인간은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자연적 본능적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기사랑은 자연법적 질서이며, 그 질서는 곧 규범이 된다. 바첵의 자기사랑 이해는 그의 사랑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상응한다고 하겠다. 바첵은 니그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첵에게 자기사랑은 본능적으로 옳은 것인데 반해, 니그렌에게 자기사랑은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사랑 이해의 충돌은 그 근원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차이에서 온다.

앞에서 살핀 대로, 아웃카에게 인간 아가페는 동등배려이다. 동등배려로서의 사랑의 두 가지 규범적 축은 일방향성과 보편성이다. 전자는 기독교 사랑의 이타성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자기사랑의 정당화에 거스르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모든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명령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가톨릭 전통이 규범적으로 수용해 온 우정이나 자기사랑 등과 같은 사랑의 형태가 아닌 ‘일방향적 이타적 사랑’을 도덕적 이상으로 중시해 온 개신교 전통에서 있으면서 자기사랑을 정당한 종교적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하며 그 도덕적 정당화의 논리와 이론을 발전시켜 온 점은 아웃카의 공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

니그렌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고지순하며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랑의 형태도 참된 사랑일 수 없다. 그러기에 우정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환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려놓지 않으며, 자기사랑은 획득적 탐욕에 휘둘리는 부정적 사랑의 형태라는 평가를 철회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와 반응을 바라지 않는 온전히 이타적인 사랑이기에,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온전히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근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유일한’ 참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니그렌의 강한 신념이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온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관’(tube)이 되는 것이다. 니그렌은 규범에 대한 인식과 평가, 행위의 동기와 동력 등의 관점에서 사랑의 행위자로서

인간은 스스로의 입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며 또 찾을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할렛은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사랑의 규범적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니그렌의 유신론적 기초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행위의 '기준' 모색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규범적 모범으로 삼고 사랑하라는 조언을 삼가지 않겠지만, 니그렌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동기와 실행의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할렛은 니그렌이 종종 받는 비판 곧 사랑의 행위자로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비껴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하여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그 사랑으로 타자를 사랑하고 일방향성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깊은 사랑에 이른다는 전체적 구도 설정에서 바첵은 참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니그렌의 기본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한다. 니그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가페 외에 다른 모든 형태의 사랑을 부정(不淨)하게 보는 반면, 바첵은 자기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사랑을 긍정한다.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요 표출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협력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니그렌의 경우에서도 인간 행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 혹은 표출은 인간 행위자의 도덕적 가능성(사랑의 행위자의 동기부여와 목적의식 그리고 실행력 등의 관점에서)에 대한 철저한 부정(否定)을 전제한다. 이에 반해, 바첵은 인간 행위자에 내재된 본연의 혹은 본성적인 사랑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본성 자체가 은혜인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하면서, 인간의 본성적

사랑은 고상한 수준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점을 바츨은 더불어 강조한다.

아웃카는 일종의 제3의 길을 취한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범위를 상응하여 동등배려로서의 인간 아가페는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다. 자기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아웃카는 사랑의 범위의 관점에서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아웃카는 사랑의 대상 범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편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사랑의 동기나 정서적 역동 그리고 실천동력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니그렌식(武)의 이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정이나 자기사랑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랑이 갖는 고유한 도덕적 특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바츨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웃카는 그러한 사랑의 형태들이 ‘은혜’ 자체이며 동시에 본능적 자연법적 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아웃카는 인간 행위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단순한 통로로 보는 니그렌의 입장이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시될 수 있는 위험과 인간 행위자의 도덕적 가능성을 철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에 반대하며 조심스럽게 자기사랑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기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사랑의 형태가 그 자체 안에 내재된 하나님 사랑의 표출이라는(본성적 자기사랑의 욕구 자체를 ‘은혜’로 해석하는) 바츨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

3) 자아와 타자의 관계

자기사랑의 문제를 기독교윤리적으로 논구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

요하게 검토해야 할 주제는 사랑의 삶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단순화해서 정리해 본다면, 한편으로 타자를 향한 철저한 이타주의적 삶이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요체라는 입장에 서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배려와 관심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이타적 삶의 지향이 적절한 자기사랑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면 그러한 이타주의적 사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사랑은 정당한 도덕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입장을 양극으로 하여 그 사이에 자아와 타자의 관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니그렌은 규범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극단적 타자지향성을 기독교 사랑의 본질로 이해하며 자기사랑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죄악된 본성의 열매로 판단한다. 니그렌의 사랑 이해에서 타자가 항상 우선이며 중심인 데 반해, 자아는 배려의 대상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얻을 수 없다. 할렛은 니그렌과 마찬가지로 이타성을 기독교 사랑의 중요한 규범적 축으로 여기지만, '선호'의 관점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한다. 우리가 본 대로, 신약성경을 명제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탐구하면서 다양한 자아·타자 관계를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타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야를 자아를 향해 돌리게 한 점은 긍정적인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이타주의적 초점을 유지하면서도 자기사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할렛은 니그렌과는 다른 형태의 이타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할렛은 여전히 타자지향성을 기독교 사랑의 핵심으로 봄으로써, 니그렌이 받고 있는 주된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할렛은 자기사랑의 여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아복종'을 기독교 사랑의 이상(理想)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자기사랑을 이타적 사랑에 비해(자아를 타자에 비

해) 부차적 지위로 격하시키는 흐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⁷²⁾

바첵은 이러한 비판의 선봉에 설 수 있는 학자이다. 그에게 있어 자기 사랑은 이타적 사랑의 부속물이 아니다. 자기사랑은 이타성이라는 결정적 변수에 따라 사랑의 실행 여부와 강도가 좌우되는 그런 성격의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아는 타자만큼 소중하며, 자기사랑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독립적으로 고려되고 실행되어야 할 도덕적 책무인 것이다. 바첵은 도덕적 정당화 뿐 아니라 신학적 정당화도 빼놓지 않음을 보았다. 자기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며 표출이기에,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배려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역동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바첵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하여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볼 때 타자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졌던 규범의 추를 자아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 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웃카는 한편으로 이타주의에 반응하여 적절한 자기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 불편부당론에 응답하여 자아와 타자를 위한 불편부당한 대우에 대한 강조가 왜곡된 자기사랑의 정당화와 기계적 균형으로의 환원에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니그렌과 할렛을 향해 아웃카는 적절한 자기 배려를 배제한 이타성의 강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부적절한 자기 부정, 맹목적 사랑의 폐해, 착취적 사랑으로의 변질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할 것이며, 바첵을 향해서는 자기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윤리적 신학적 정당화가 자칫 이기적 역동에 좌우되는 획득적 욕구 추구와 같은 왜곡된 자기사랑의 양상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할 것을 환기할 것이다.

72) Pope, 위의 글, 172-173.

III. 결 론

필자는 니그렌과 할렛 같은 이타주의자처럼 기독교 사랑의 일방향적 타자지향성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또 반드시 자아보다 타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규범적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아웃카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자 한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기계적 균등이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불가피한 불균형(asymmetry)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바체으로 대표되는 목적론적 자연법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힐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바체과 달리 규범적 무게중심은 여전히 일방향적 이타성과 보편성에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제 자기사랑에 대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교회의 ‘자기사랑’ 이해와 실천의 성숙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첫째, 한국교회는 ‘자기사랑’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밝힌 대로, 계속해서 보편성과 일방향적 이타성을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요체로 견지하면서, 자기사랑도 기독교 사랑의 중요한 한 형태로 받아들일 넓은 마음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 사랑의 이상을 자기희생의 규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허용하지 않는 전적으로 타자지향적인 자기희생적 삶과 실천’에서 찾아온 기존의 이해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제안인 것이다.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원죄의 두 양상은 교만과 정욕이며 또 그 뿌리에는 소유지향적 자기애의 본능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극단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적절한 자기 배려마저도 ‘죄악’의 범주 안에 묶어두려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시도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주제가 있다. 자기사랑은 ‘최악된’ 본성에 연관되어 있는 반면 자기 배려를 철저히 배제한 자기희생은 숭고한 기독교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그 이상(理想)의 실천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밖 영역에서 약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자의적 타의적 자기희생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자기희생의 강제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제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아와 타자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아웃카는 과도한 타자 배려(적절한 자기사랑이 배제된 과도한 자기희생)의 위험성을 감지한다. 아웃카는 기독교 사랑은 백지수표(blank check)를 써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자기사랑이 과도한 타자 배려의 위험성을 막아 주는 장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자기희생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적절한 자기사랑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배제한다면 기독교 사랑은 맹목적 사랑, 자기학대적 사랑, 타인착취적 사랑 등의 왜곡된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자지향적 일방향성과 자기희생적 헌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오히려 그 대상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랑의 대상에 내재된 악(惡)의 가능성의 관점에서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오직 타자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악용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니그렌

은 자기사랑의 도덕적 신학적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을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또 단절한다. 이에 반해, 바첵은 자기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과 표출로 봄으로써 둘 사이의 연속성을 두드러지게 설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앞에서 본 대로, 아웃카는 니그렌과 바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 사이의 극단적 대비와 단절을 강조하는 니그렌의 이해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자기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반영과 표현으로 보는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동일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사랑으로 축소 또는 환원하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制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극단적 대비나 단절도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경계선을 허물고 섞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자기 자신을 사랑함’ 사이에 지켜야 할 구분 혹은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자기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은 예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나타나야 하지만, 자기사랑이 자기숭배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자기사랑’론은 유익하다. 왜곡된 자기사랑은 하나님 밖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교만과 정욕을 포함하는 ‘원죄’와 다른 이름이 아니며, 자기숭배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참된 자기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되시며 또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어거스틴

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자아의 구분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승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조언인 것이다.

참고문헌

- 이창호, 『진 아웃카(Gene Outka)의 윤리 사랑: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와사회연구부 편, 『윤리신학의 탐구』(신산信山 김철영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http://www.newadvent.org/summa/>
- Augustine. *Confessions*. Translated by Chadwick, Hen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Hallett, Garth L. *Christian Neighbor-Love: An Assessment of Six Rival Version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9.
- Luther, Martin. *Lectures on Romans*. Translated and Edited by Pauck, Wilhel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 Outka, Gene.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Outka, Gene.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Edited by Santurri, Edmund N. and Werpehowski, Willia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2.
- Outka, Gene. Agapeistic ethics.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Edited by Quinn, Philip and Taliaferro, Charles. Oxford: Blackwell, 1997.
- Outka, Gene. Comment on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6, 1998.
- O'Donovan, Oliver. *Problem of Self-love in St. August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Pope, Stephen J. *The Evolution of Altruism and the Ordering of Lov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4.
- Pope, Stephen J.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3, 1995.

Vacek, Edward Collins, S. J. *Love, Human and Divine: The Heart of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4.

Vacek, Edward Collins, S. J. Love, Christian and diverse: a response to Colin Grant.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4, 1996.

논문투고일: 2013. 2. 27.

심사개시일: 2013. 3. 23.

게재확정일: 2013. 4. 20.

 • 국 문 초 록 •

자기사랑도 기독교의 사랑인가? 아퀴나스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꼽은 반면, 루터는 자기사랑을 왜곡된 사랑의 형태로 생각했으며 현대에 와서 니그렌 같은 이타주의자는 자기사랑은 참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랑의 형태로 보면서 기독교 사랑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은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종교적 도덕적 명령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자기사랑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자기사랑의 윤리적 모형을 정리해 보고 그 모형들을 비교·평가하면서 자기사랑의 기독교윤리적 정당성을 논구할 것이다.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탐구를 이끌어 갈 주제들(혹은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첫째, 자기사랑과 아가페의 규범적 정의(定意)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사랑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주제이다. 셋째, 자아와 타자의 관계 문제이다. 이 주제들 혹은 질문들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독교적 '자기사랑론'이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네 명의 학자를 주로 다룰 것인데, 자기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대비적인 견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니그렌(Anders Nygren)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로서 바첵(Edward Vacek), 그리고 그 중간에 할렛(Garth Hallett)과 아웃카(Gene Outka)를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이 네 학자가 각각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살피고 이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좀더 온전한 자기사랑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자기사랑, 기독교윤리, 안더스 니그렌, 갈스 할렛, 에드워드 바첵, 진 아웃카
